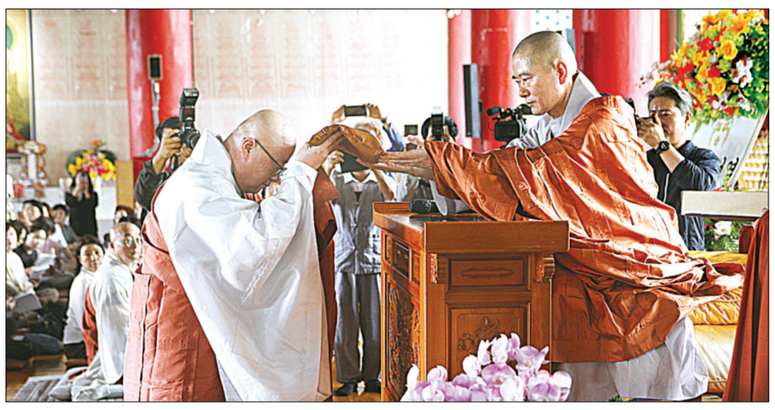
현진 스님, 전계·전강…“중생에 다가가라”

9월 22일, 동화사서 법회 봉행
제자 33명에게 전계 및 전강해
제자들 “정법, 세상에 전할 것”
의현 대종사, “영겁 인연 결실”

대구 동화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영은 현진 스님의 전계전강 법회가 9월 2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됐다.

“충천(衝天)의 대장부 기질을 지닌 수행자여! 부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면 말하지 말고, 부처의 법다운 위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비원(悲願)의 굳건한 두 다리로 당당히 무명조림(無明稠林)에 가려있는 중생에게 다가가라”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영은 현진 스님의 전계전강 대법회가 9월 2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됐다.

전계전강법회는 부처님과 조사의 혜명을 대대로 잇는 ‘부종수교 전불심인(扶宗樹教 傳佛心印)’의 장이다.

전계·전강사 현진 스님은 1973년 원명 대종사를 은사로 입산해 1989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은해사 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직지사 승가대학 강주, 조계총림 송광사 승가대학 강주,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고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율원 율주다.

현진 스님의 전법 강맥은 석가모니 부처님·아난 존자(阿難 尊者)·경허 성우(鏡虛 惺牛)·한암 중원(漢巖 重遠)·탄허 택성 (呑虛 宅成)·여천 무비(如天 無比)이며, 전계 율맥은 석가모니 부처님·우바리 존자·남산 도선(南山 道宣)·원조 영지(元照 靈芝)·자장(慈藏)·혜관(慧寬)·보담(寶曇)· 석교(石橋)·상월 인환(霜月 印幻)·범일 보성(梵日 菩成)이다.

전계·전강을 받은 제자는 △현진(보현사 주지) △도연(황룡사 주지) △정헌(동국대 강사) △혜천(감응사 주지) △향산(고운사 화엄학림 전문반 재학) △현정(통도사 율원 교수사) △능인(수덕사 강원 교수사) △인법(수덕사 강원 학감) △연학(수덕사 강원 교수사) △진휴(동화사 강원 학장 대행) △효진(극락암 주지) △해공(동화사 율원 율감) △청와(대안사 주지) △인공(회암사 주지) △무진(내원사 주지) △시륜(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선주(동화사 율원 교수사) △효담(통도사 강원 교수사) △성만(정법사 기도) △명안(통도사 강원 교수사) △원덕(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눌주(법장사 주지) △정일(통도사 연수국장) △현장(통도사 회계과장) △서명(초기불교 승가대학원 전문반 재학) △명원(정법사 총무국장) △증엄(동화사 율원 연구반 재학) △여운(해인사 강원 교수사) △법일(동화사 포교국장) △금후(동화사 강원 교수사) 스님 등 전강 제자 31명과 혜범 스님(동화사 호법국장)과 현종 스님(동화사 재무국장) 등 전계 제자 2명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현진 스님은 이날 전계전강 제자에게 부처님과 조사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로 살아 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두 손에는 언제나 환희라는 씨줄과 융화의 날줄로 짠 보배그물을 들고서 어리석음이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생을 향해 힘껏 던져 일깨우라”며 “그리하여 대자(大慈) 대비(大悲) 대희(大喜) 대사(大捨)의 길을 넓혀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지니 삼세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그러했듯이 금일 법석의 대중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계전강 제자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계법의 등불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정과 지혜, 자비를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았다”며 “영은 현진 스님의 큰 은혜로 부족하나마 눈을 떠 조사와 조사가 전하신 부처님의 법과 율을 오늘 저희 전계전강 제자들이 받았다”고 감사했다. 이어 “저희 제자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로 아래로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전해주신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세상에 꽃피울 수 있도록 부단히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계전강식에는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와 주지 혜정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홍법사, 선차의 세계 널리 알린다

10월 5~6일, 제28회 세계선차아회 개최

홍법사 선차대회 중심으로
아시아 차인들 참여 행사

세계 선차 문화의 중심으로 홍법사가 발돋움한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제28회 세계선차아회’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홍법사는 매년 선차아회를 열고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 선차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선과 차가 만나는 자리 ‘선차아회(禪茶雅會)’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차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시아 대표 다도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다도 문화를 통해 선의 진수를 나누는 자리로 확장됐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홍법사는 매년 세계선차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유롭게 행사를 누리고 즐기며 차를 통해 선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제28회 세계선차아회는 개막식에서 각국의 선차 행다가 발표된다. 10월 5일 오후 2시 홍법사 야외 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선차 행다 시연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서 참여하는 각국의 대표 시연단이 참여해 각 20분씩 선차 행다를 발표한다.

개막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세계 석학의 ‘다론(茶論)’, 좌담회가 진행되며 이어 개막식전 공연으로 천연염색 퍼포먼스와 선·차·악,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는 한국의 무상 선사와 중국 조주 선사, 일본 무라다슈코에게 올리는 헌다 의식 및 평안등 점등식과 사찰음식 홍보행사, 등불춤과 피리연주, 싱잉볼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선차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선차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세계석학 10인이 참여하며 불교와 유교, 도교의 문화를 품고 있는 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은 “무엇보다 홍법사가 선차 문화의 선양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선차아회는 대중이 함께 참여하며 체험하는 시간이다. 특히 학술대회를 통해 선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선차아회는 2013년 11월 송광사에서 시작됐다. 이어 양평 용문사, 상원사에서 열렸으며 중국으로 옮겨가 국제무대로 확장됐다. 지난 2017년에 홍법사에 열렸으며 이후 7년 만에 다시 홍법사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음악회

9월 20일, 북항친수공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9월 20일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에서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폭우로 인해 명상걷기대회는 취소됐으며 팔관회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가수 조장혁, 상월청년합창단, 밴드 나인즈, 자전거 탄 풍경, 불자가수 권미희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팔관재계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경품에는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음식물처리기, 태블릿, 스마트 워치,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비록 지금 비가 오지만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음악을 즐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 팔관회 본행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봉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반야선원, 베트남 불자 위한 도량으로

9월 22일 베트남 불자 첫 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직할 포교원 반야선원(주지 안도 스님, 이하 반야선원)이 베트남 불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9월 22일 반야선원에서 베트남 불자들이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부산 경남의 많은 베트남 불자들이 법회를 진행할 법당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마련된 시간이다.

법회에는 반야선원 주지 안도 스님, 실천승가회 일문 스님, 베트남 각려호 스님 및 베트남 불자 80여 명이 법회에 동참 했다.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베트남 불자 법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반야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야선원 주지 안도 스님은 “비록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베트남에서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의 형제이자 식구이다”며 “여러분들을 위해 반야선원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을 것이니 언제든 편히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등사서 강화 역사문화를 만나다

제24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0월 5~13일 전등사서 열려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윤 스님)는 10월 5~13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24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발자취’다. 10월 5일 오전 10시 ‘삼랑성 전국학생 미술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의 역사 강좌 ‘우리가 몰랐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진실’, 오후 2시에는 전등사 대웅보전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오후 7시부터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10월 6일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가 봉행된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축제 추진위원장)은 “많은 인천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32-937-0125 임은호 기자



